

물뚫에서 고무뚫으로…물질 고단함은 변하지 않았다는데

해녀박물관 조사보고서 「제주해녀뚫 이야기」

등록 : 2013년 01월 04일 (금) 14:03:41 | 승인 : 2013년 01월 04일 (금) 17:08:52
최종수정 : 2013년 01월 04일 (금) 17:08: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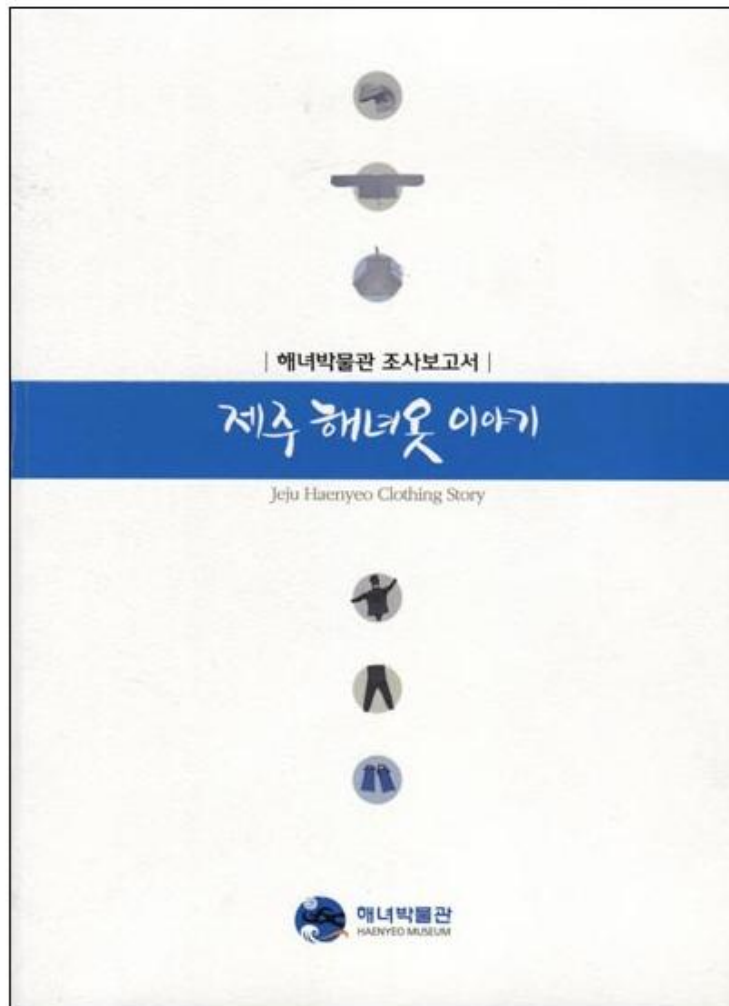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예전에 뭇 옷이란 게 있었나. 무명으로 물뚫을 만들어 입은 게 전부지. 누가 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얼마나 추운지, 아이고, 그 힘든 걸 어떻게 말로 다 해"

잠녀들을 만나고 물질에 대해 물으면 녹음이나 한 것처럼 쏟아져 나오는 말이 있다. 과거 힘들었던 이야기는 기본이다. 어떻게든 물건을 건져내야 먹고 살았다. 작업복이란 의미도 나중에야 만들어졌다. 당시는 구하기 쉬운 하얀 무명천으로 몸을 간신히 가릴 옷을 만든 것이 전부였다. 1970년대를 전후해 고무뚫이 보급되고 나니 물질 사정 역시 달라졌다. 바다에서 훨씬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 때부터 잠수병이 그림자처럼 따라붙기 시작했다. 무명뚫을 입었을 때는 한 번 물에 들고 나면 적어도 20~30분은 쉬지 않으면 안됐다. 지금은 서너시간 물에 있어도 거뜬할 만큼 '성능이 좋은' 고무뚫이 반 무상으로 보급된다. 행여 바다 작업에서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길까 까만 색 일색이던 뚫에 형광색을 가미한 유광 작업복도 만들어졌다.

그렇다고 고단한 물질이 조금이라도 편해졌을까. 사정은 그렇지도 않다. 작업 전 주먹만큼 쏟아 붓는 약의 양도, 병원을 찾는 횟수도 늘었다. 뚫은 시절을 타는데 사람은 그러지 못한 까닭이다. 노 잠녀에게 양질의 잠수뚫은 어딘지 어울리지 않아 헛웃음이 난다.



'소중이'부터 유광 고무옷까지 제주 '해녀옷'의 변천사를 다룬 보고서가 나왔다.

해녀박물관이 제주 해녀들의 물질 작업복인 '해녀옷'의 변천과정과 제작과정, 판매처 등을 상세히 조사해 정리한 '제주 해녀옷 이야기'다.

'해녀옷'을 통해 제주 잠녀의 지난 삶과 역사를 훑어볼 수 있다.

1702년 탐라순력도에 나오는 '용두암 해녀'들이 입었던 물소중이는 1970년 이전까지 모양이 조금 바뀔 뿐 세대를 이어 전해졌다. 가장 전형적인 작업복이다. 그들만의 지혜도 엿볼 수 있는 것이 젖은 상태에서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도록 매듭으로 여밀 수 있게 한다거나 한쪽 어깨만 끼워 입을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19세기 말부터는 '눈'이라 부르는 수경이 '해녀옷' 목록에 포함됐다.

1970년대 고무옷의 등장은 물질 행태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았다. 고무옷 착용으로 작업 속도나 생산량은 분명 늘었다. 이 부분은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플러스일지 모르지만 산업화 바람에 허물어졌던 불턱을 다시 쌓아야 하나 하는 고민도 만들어냈다. 마을 중에는 아예 고무옷을 입고 작업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도 있었고 잠녀 수에 비해 고무옷 보급 물량이 턱없이 적어 다름 소지가 됐기 때문이다.

처음 도입때부터 지금까지 고무옷 가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부담이어서 각종 접착제를 동원해 수선하고 작업이 없을 때는 제일 먼저 손질해 훈장처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둔다. 예전에는 돈벌이가 됐을지 몰라도 요즘 같아선 고무옷만으로는 먹고살기 힘들어진 사정 뒤로 정때문에 가게 문을 여는 '삼촌'도 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는 부록으로 구좌지역 잠녀들의 생활상 등을 엿볼 수 있는 설문자료가 정리됐다.